장흥군 공직자들 기강 풀렸나

음주운전 적발·업무 갈등 폭행·인사불만 탄원까지

총선 앞두고 품위손상 사례 잇따라… 대책 마련 시급

4·11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 산하 일부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산림과 소속 환경미화요원 J씨(별정직)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지난 9일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6)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산읍 K(7급)씨는 지난 15일자 장흥군 전자편지를 통해 "이명흠 군수가 지난해 노력항 개발과 관련해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군수를 상대로 일침을 가해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 6급(계장급)으로 승진, 면 단위 지소로 발령을 받은 K씨는 남편을 통해 인사불만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동료직원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취하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Y면사무소에서는 직원들간 업무갈등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기연 부군수는 "요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직장 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진 분위기라 하지만 일련의 군 산하 일부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는 시시비비를 가려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백암산 고로쇠는 지금이 제맛

내달 17~18일 장성 백양고로쇠 축전

"백암산 정기 머금은 맑은 고로쇠 수액으로 봄을 느껴 보세요!"

'장성 백양고로쇠 축전'이 3월 17~18일 이틀간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성 백양고로쇠 축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고로쇠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공연 위주의 행사를 줄이고 관광객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차별화와 생산성을 갖춘 축제 운영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한다.

첫날인 17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제장 일원에서 국악한마당, 품바, 민요공연, 하모니카 연주,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고로쇠 경매를 비롯해 고로쇠 빨리마시기, 목공예 체험, 염색체험, 떡메치기, 추억의 캠프파이어 등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입암산 위령제와 입암산 등반대회, 고로쇠 채취체험, 남창계곡 사진전 등이 마련된다.

이동형 축전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가 장성백양 고로쇠의 우수한 맛과 효능을 널리 알려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봄 소식 전하는 야생화 앵초 담양군 대덕면에 자리한 야생화 농장에 앵초 등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앵초는 꽃 모양이 마치 앵두와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담양군 제공〉

죽향 담양서 세계 대나무 엑스포

2015년 6월 20일~7월 19일까지 한달간

오는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담양에서 세계 대나무 엑스포가 개최된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2015 담양 세계 대나무엑스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28일자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군은 지역 특산물의 유통·판매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대나무 관련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죽향(竹鄕) 담양'을 세계 속에 알릴 계기로 '세계 대나무 엑스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 개최로 건축자재를 비롯한 기능성 섬유와 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나무의 첨단 바이오 자원으로서의 투자촉진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군은 조성중인 '기후변화 체험교육관'과 '개구리생태공원'과 연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꼽히는 대나무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 수종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로 활용,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메신저 '생태도시 담양'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군은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오는 2015년 6월 20일 엑스포 개장을 목표로 국비 46억원과 지방비 99억원 등 총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일원 31만3000여㎡ 부지에 대나무 엑스포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 지원조례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대나무엑스포' 분위기 조성과 홍보는 물론 세계대나무협회(WBO) 제10차 총회 유치에 나서는 등 '2015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준비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종합 체육관 등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로 행사장을 꾸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나주 운흥사 '불조삼경' 보물 지정

나주 운흥사에 소장된 불교경전인 '불조삼경'(佛祖三經·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694-(2)호로 지정됐다.

'불조삼경'은 현존본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인 1361년에 전주 원암사 판각 책판에서 인출한 책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고려시대의 불교학 및 인쇄 출판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불조삼경'은 고려 말기~조선 초기 사이에 한국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가 편찬한 것으로, 가장 먼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불교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 '위산경책' 등 3종을 합책했다.

운흥사 소장 '불조삼경'은 지난 2009년 나주시가 문화재로 지정신청한지 3년만에 보물로 지정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묻혀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전승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전 북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공포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 위반땐 3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된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7일 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다.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은 이날부터, 의무 휴업은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1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업체와 전주지역 법인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공포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 있다"며 "상생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중이며 연간 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中 탈북 난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민주평통 김제시협 궐기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이재희·이하 민주평통)는 28일 김제시청앞 광장에서 보훈단체와 사회단체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사진〉

민주평통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31명을 강제송환하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극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은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부와 성명서를 중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내년 농축산업 예산 691억 심의

남원시는 지난 27일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열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 17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을 신청받은 결과 전년도 신청예산 661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691억원을 신청받았다. 신청액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인 직접 시행하는 자율사업이 21개분야 455억원,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18개분야 236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신청내용을 보면 ▲신기술 보급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분야에 55억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확충 및 농지규모화, 용·배수로 개선 등 식량작물분야 290억원 ▲과수·원예 고품질 생산과 조사료 생산 확충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원예 축산분야에 286억원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개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산림 바이오매스 등 임업산촌분야 60억원 등이다.

시는 신청된 사업을 담당 부서별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남원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의 적정성·타당성·효율성 등을 분석 심의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한 예산 신청액은 전북도 농정심의회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과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2013년도에 사업 분야별로 시행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익산시 올 농촌 개발사업에 54억 투자

익산시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에 올해 54억원을 투자한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웅포권역'을 시작으로 '함라권역', 용머리권역 사업과 함께 올해 새롭게 왕궁권역과 여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웅포권역'은 올해 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체험 관광객 유치를 시작하며, '함라권역'은 지난해 사업에 착수해 친환경단지 경관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감록 '십승지' 관광 상품화 추진

전국 6개도 11개 읍·면장

부안서 홍보 극대화 협력

조선시대 민간에서 널리 읽혀진 대표적 비결서인 '정감록'은 외적의 침입으로 난리가 났을 때 병화(兵火)를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전국 '십승지'(十勝地)를 꼽았다.

우리나라 '십승지'로 전해지는 전국 6개도 11개 읍·면장들이 28일 부안에 모여 '십승지'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정감록'은 부안 변산면을 비롯해 무주 무풍면·남원 운봉읍, 경남 합천 가야면, 충남 보은 속리산면·공주 유구읍, 경북 상주 화북면·봉화 춘양면·영주 풍기읍·예천 용문면, 강원 영월 영월읍 등 10곳을 '십승지'로 소개하고 있다. 부안지역은 변산 동쪽 호암 아래로 명시돼 있어 성계댐 아래, 샛불바위 일대, 우금산성 일대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조선 십승지 읍·면장 협의회는 십승지 읍·면의 행사 동향 등 업무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다지고 십승지 관광책자와 통합로고 및 캐릭터 제작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시, 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전주시는 최근 201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까지 신청한 138개소 4899가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주민부담금이 적고 참여율이 높으며 도로굴착 등이 적정한 숲정이 성당 주변 등 26개소 1334가구를 선정했다. 또 예비사업 지역으로 4개소 165가구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사계약이 이뤄지는 대로 착공해 오는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립도서관 매주 토요일 독서논술 수업

익산 시립도서관(관장 김병재)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회' 회원을 모집한 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16주) 매주 토요일 독서논술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생이 읽어야 할 우리 문학 읽기와 독서토론 및 통합논술'이라는 주제로 독서·논술지도사와 함께 독서논술과 서술식 글쓰기, 통합논술 수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는 학생부담)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모현 도서관과 영등 도서관으로 선착순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063-859-3731)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군 축산 조사료 면적 확대 23억 지원

순창군은 지역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확대를 위해 2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조사료 면적을 지난해보다 15% 늘린 900ha로 확대해 이곳에서 2만t을 생산해 조사료 자급도를 8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수확·제조비 및 생산 장려금으로 14억원, 호밀·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종자대로 1억7500만원을 지원해 보조율을 30%에서 70%로 상향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97억 투입 17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

남원시는 올해 97억원을 들여 이백면 양강마을 등 17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한다. 시는 이백 배수지에서 13.7㎞ 구간에 광역 상수관을 매설하고 산동면 등 구마을 등 9개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게 된다.

또 월락 정수장에 대한 시설개량과 대산면 일대 골프장 주변마을에도 광역상수도를 신설한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